

2022년 11월 1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4편 3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72(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1장 12~20절(구약p.772)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2.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5.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16.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18.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20.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 말씀선포 / 회개의 결과

사람에게 있어 위기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되지만 또 다른 자들에게는 축복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환난과 재앙을 당해도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됨을 보여줌으로 성도에게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도 유익 되는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

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화도 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1.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 소발은 욕을 향해 그의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 장막에 불의가 있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3~14절입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에 빠져 범죄 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뵈옵기가 두려워 숨어야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소발의 말은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능히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2. 환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 소발은 욕에게 회개를 통해 두려운 감정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환난을 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15~17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죄로 인한 결핍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결핍이 없었고, 사망도, 아픔도, 가난도, 재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는 어떠한 부정적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물 흐르듯 지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괴롭고 아프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시기가 있어야 얻어지는 것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흘리며 수고의 시간이 있어야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가며 경험하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흑 돌이켜야 할 일과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인생길에서 당하는 환난을 흐르듯 떠내려 보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3. 소망 속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 회개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환난을 극복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들을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했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생기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하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현실은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고 또 살기 위한 생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 환난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생존의 치열한 일들 앞에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50(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 폐 회 / 주기도문